

국제행사 승인 완도해조류박람회 준비 박차

국내의 참가기업 문의의 증가...국고 30억 체험장 확충 정보 공유·수출 상담·계약 체결 비즈니스 기능 강화

세계해조류 시장 주도권 선점의 교두보가 될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국가 대표 행사'로 격상하면서 국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완도군은 정부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 이후 국내외에서 입장권 및 참가기업 문의 등이 급증함에 따라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로부터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입장권 및 참가기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해조류박람회 개최 필요성과 당

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다.

완도군은 이번 국제행사 승인으로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지역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로 격상함에 따라 격에 맞는 박람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완도군은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완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해조류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해조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완도군은 특히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테마로 한 2014해조류박람회가 해조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이번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외 각국의 해조류 관련 기업과 단체는 물론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해조류 산업형 비즈니스 박람회'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해조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수출 상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비즈니스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국제행사 승인을 통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관련 세부행사 준비에도 주력하고 있다. 완도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 보조금 30억원을 활용해 해조류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 미역, 톳, 다시마,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육상 체험장으로 옮겨 실제 양식되고 있는 실물 그대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또 해상에 바다신비관과 건강 인류관, 미래자원관을 조성하고 해조류부터 바다, 지구,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각 전시관마다 주제를 정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해조류를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중이다.

신우철 조직위원장(완도군수)은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미래 인류의 식량 대체인원인 해조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해조류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해조류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을 주제로 오는 2017년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4일간 완도항 일원에서 열린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군 옥천면 일대에 무궁화꽃이 만개했다. 옥천면은 오는 15일까지 무궁화꽃 축제를 연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옥천면 15일까지 무궁화꽃 축제

따뜻한 해남에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 2회 옥천면 무궁화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옥천면 무궁화꽃 축제는 옥천면 영신리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 지강 양한목 선생 등의 애국충절의 정신을 기리고, 무궁화의 일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특별절인 15일까지 대형 무궁화

나무 33목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 꽃 화분을 이용해 태극무늬와 한반도 문양의 대형 무궁화 전시장을 조성한다.

옥천면 무궁화꽃 축제는 옥천면 영신리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 지강 양한목 선생 등의 애국충절의 정신을 기리고, 무궁화의 일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특별절인 15일까지 대형 무궁화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지역 어린이들이 행복 체험숲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감성 쑥쑥 크는 '행복 체험 숲'

진도군 소외계층 아동 대상 운영 큰 호응

진도군이 숲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인 '행복 체험 숲'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다문화, 장애우,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천리 편백숲과 윤림삼별초공원, 금급해변 등 인근 도시숲 조성지에서 숲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관내 어린이집 14개소 40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주 2~3회씩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참여 아동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다는 게 진도군의 설명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실내에서 활동하는 아이보다 자연을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의 감성이 고르게 발달하고, 신체조절능력과 사고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 생일도 어린이들이 청각 채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바다의 사슴뿔' 청각을 아시나요

완도 생일도 40여 양식어가 채취 구슬땀

'가고싶은 섬' 완도 생일도 어린이들이 '바다의 사슴뿔'이라 불리는 청각 채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생일도는 40여가가 청각 양식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태풍도 비껴가고 갯벌도 없는 덕분에 작황이 좋아 청각 채취에 하루가 짧을 정도다. 청각은 사슴뿔처럼 생긴 녹조식물로 바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많이 일지 않는 바위에서 자란다.

청정바다에서 자란 생일도산 마른 청각은 1kg당 1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타지역 청각과 비교해 1000~2000원 정도 높은 거래가격이다.

김천민 생일면사무소 농수산담당은 "올해 생일도에서 10여t의 청각을 생산해 1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각은 김장의 주재료며, 냉국과 무채무침 등으로 요리하거나, 효소발효액으로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청각은 알키리성 식품으로 육류와 환상궁합이며 열량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에서는 해독작용 및 수종 치료에 좋은 해조류로 소개되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윤선도유물전시관 홈페이지 개설

고산 윤선도유물전시관의 소장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gosan.haenam.go.kr)가 개통됐다.

고산 윤선도유물전시관은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고산의 고택이자 해남윤씨 종가인 녹우당에 인접해 있다.

고산과 공재 윤두서 등 조선 후기 학문과 예술의 혁신을 이끌었던 해남윤씨 어조은 공파의 유물 4600여점이 소장돼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전시관 관람 정보와 함께 전시관내 특별전시실과 1.2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고산을 비롯해 공재 등 해남윤씨의 주요 작품 및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 각종 논문 자료 등을 게재한 학술 자료실과 함께 녹우당과 고산유적지, 금쇄동 등 군내 관련 유적들에 대한 소개, 전시관에서 진행중인 기획전 등을 살펴보고, 관람을 예약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도 마련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9일 "해남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체계있게 정리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개통했다"며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더 쉽게 접하면서 전시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통합 진도군체육회 안장주 상임부회장 내정

통합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안장주(58·사진) 체육회 부회장이 내정됐다.

안장주 상임부회장 내정자는 진도군 축구협회장과 진도청년회의소 회장, 진도읍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진도군러빙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전국의 러빙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진도군의 집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지역 체육계는 안장주 상임부회장 내

정자가 새롭게 출범한 통합체육회 출범 초기 안정적인 조직운영은 물론 체육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도군체육회장 인 이동진 진도군수와 함께 지역 체육발전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토지, 6000평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